

‘우주를 향한 꿈’ 고흥우주항공축제 준비 순항



5월 2~5일 나로우주센터 일원서 개최...콘텐츠 확대 공영민 군수 “어린이·관광객들에 특별한 추억 선사”

고흥군이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고흥우주항공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우주의 신호(Space Signal)’를 슬로건으로, 우주가 보내는 생명의 신호와 인류의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아 한층 확장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화려한 불거리를 대폭 강화해 전국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제의 가장 큰 불거리는 고흥군 최초로 오는 5월 3일 펼쳐지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다.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블랙이글스가 고흥의 푸른 하늘 위에서 선보이는 정밀 곡예비행과 컬러 스모크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감동과 짜릿한 전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에서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카이스트-무인탐사연구소 우주로버 퍼실렛 체험, 우주인 카니발, 우주 반려 로봇 등 다양한 우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실물체 전시관에서는 나로

호·누리호 연구성과물 실물체 전시, 우주비행사 특별체험전, 우주 토크쇼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또한 축제에 앞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위치한 ‘더현대 서울’에서 우주항공축제 팝업쇼 행사를 열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축제를 미리 알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팝업쇼는 지구 문명, 우주 문명, 우주인들의 카니발 등 3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각 테마존에서는 우주발사체 모형, 화성 표면, 우주 귀환선 포토존 등을 비롯해 우주로버 시연 체험,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접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으며, 우주 관련 굿즈도 함께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에는 ‘녹동바다불꽃축제(4월 30일~5월 3일)’도 연계 개최된다. 녹동항 일원에서 화려한 드론쇼, 불꽃놀이, K-ART

페스티벌, JC청춘콘서트 등 다양한 불거리가 펼쳐져, 낮에는 우주과학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아름다운 불꽃축제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흥우주항공축제와 녹동바다불꽃축제 연계해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고흥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다”며 “우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광양, 미래 수소산업 육성 전략 마련

수소특화단지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

광양시는 최근 시청 청의실에서 ‘광양 수소특화단지 지정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한 광양형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순천제일대 교수)을 비롯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사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이 수소특화단지 지정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전략, 단계별 수행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광양시 산업 여건을 반영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광양시 수소산업 현황·여건 분석, 국내외 수소산업 및 특화단지 사례 조사, 광양형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 전략 마련,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철강 등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광양시가 미래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광양시의 산업적 강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례,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읍·면 지사협-복지기동대 간담회 개최

구례군은 최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읍·면 지사협 위원장과 복지기동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업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협력사업을 올해부터 읍·면 단위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비를 활용

해 읍·면에 각 200만원씩 배부해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자살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읍·면 지사협 내 자살 예방 분과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위기기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중심의 자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보성, 청년 창업 프로젝트 참여 모집 20일까지...4개소 각 2000만원 지원

보성군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6년 보성 청년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성 청년 창업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자금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사업을 통해 창업가 4개소를 선정해 각 2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창업 자금 지원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 재무 관리 컨설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등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실무형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6@gwangnam.co.kr



“암 예방은 정기적 검진부터” 장흥군은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17일 토요시장에서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주민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대일 대면 홍보, 전화 안내, 홍보물 배포, 문자 안내, 각종 행사 연계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암검진 홍보를 강화했다. 사진제공=장흥군

여수, 올해 2230억 투입 인구감소 위기 대응

주거·경제·교육안정 등 ‘4대 전략’ 159개 사업 마련

여수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총 223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159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24년 수립된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하고 보완한 것으로, 주거안정화(행복충전, 스마트)와 경제안정화(미래충전, 꿈터), 교육안정화(지식충전, 배움터), 생활안정화(문화충전, 놀터) 등 4대 전략과제로 체계화했다. 세부적인 159개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23개, 핵심사업은 25개다. 주요 중점추진 핵심사업은 어린이도서관 생활

SOC복합화사업, 남해안 거점 역할 공공기관 유지 활동 전개, 소상공인 윈스톱 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등이다. 시는 인구 유지를 넘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구감소 위기 적극 대응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 조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다양한 가족의 공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인구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년 역외유출 방지와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고용 위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인 만큼 정책 실행력과 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또 10월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지표보완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도농복합 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특례 반영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 조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다양한 가족의 공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인구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행계획은 위기 대응을 넘어 청년이 돌아오고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될 것이다.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 추진

사용처 문제 개선 중점 논의

곡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단, 전남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본소득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사용자 문제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읍 생활권을 갖고 있는 오곡·고달면 주민들이 사용자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읍면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보다 폭넓게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읍지역에 소재한 업종들 면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5대 업종 확대,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돌봄 기관 이용 시 읍면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개선, 기본소득 체크카드 잔액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 사용 제한 금액을 누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김희중 농식품부 과장은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 가계를 창업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동 마켓 등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30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곡성=김유현 기자 hnnews1@gwangnam.co.kr